

마이스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 '착착'

전주시, 종합경기장 구조물 철거 돌입... 하반기부터 MICE복합단지 부지조성 공사 착수 예정

전주시가 지난 60여 년간 전주의 중심부였던 전주종합경기장 구조물 철거에 돌입하면서 강한 경제 전주의 새로운 심장부이자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거점이 될 MICE복합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17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컨벤션센터 중심의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부지 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주경기장의 구조물 철거에 돌입했다.

시는 총 105억 원을 투입해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3만5504㎡)과 전주푸드(1057㎡), 수위실(100㎡) 등 총 연면적 3만6761㎡의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종합경기장 철거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모든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MICE복합단지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



전주시는 17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컨벤션센터 중심의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부지 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주경기장의 구조물 철거에 돌입했다.

응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하고, 부지 및 인근에 들어설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 시립미술관 △거버넌스 기반 아이디어·사업화 실증단지(G-Town) 통합조성 등 문화·산업시설 조성에도 속도

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본격적인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에 앞서 지난해 10월 한달간 펼쳐진 '전주페스타 2024'를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에 담긴 추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작업의 시간을 가졌으며, 종합경기장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종합경기장의 탄생부터 철거 과정을 기록화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전주시 미래유산 1호의 명칭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경기장 터'로 변경했으며, 앞으로 들어서게 될 컨벤션센터 내부에 종합경기장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이 철거되면 마이스(MICE)산업 중심의 복합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종합경기장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주의 새로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

전주시 평화도서관, 29일~7월 26일 총 4회 운영

전주시 평화도서관은 전북공원에 솔진흥연합회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일 낮 12시~1시,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문성숙 동화나래연구소 대표가 진행하는 '전주 국가유산과 100만 이거리를 잇다'를 주제로 한 강의로 포문을 연다.

문 대표는 이날 전주의 국가유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에는 이진성 역사인문학 강사가 '지도로 보는 전주부성 3.2'를 주제로 지도를 활용해 전주부성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6월 28일과 7월 26일에는 김경민 전라북도 역사문화교육원 원장이 '전라북도, 한반도 역사문화의 꽃'을 주제로 총 2회에 걸쳐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시민들이 전북의 문화와 역사를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063-281-6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윤동욱 전주 부시장,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점검 실시

전주시가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17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토리골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과 서완산6 급경사지 현장 등 2곳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맞아 낙석 발생 및 시설물 균열 등 안전 취약 시설 241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윤 부시장은 이날 주요 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방문한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정비 공사가 추진되는 곳으로, 시는 자연 비탈면과 인공 비탈면 등 절개지 2만2863㎡(L=230m, H=33~40m)에 대한 사면 정비와 배수 및 도로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완산6 급경사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최근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시는 향후 정비계획에 따라 사면 정비 및 배수로 설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17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과 서완산6 급경사지 현장 등 2곳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전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약화로 인한 토사 유출과 암반 탈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등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면서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 '봄맞이 대청소' 나서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경희)는 17일, 봄을 맞아 기지제 일원에서 대대적인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기지제 상가연합회, 주민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지제 데크길 주변 산책로와 체육시설 주변의 음료 컵, 담배꽂초 등을 수거하고 가로 등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

동시에 기지제 데크 길 벤치 정비, 부러진 나뭇가지 수거, 꽃살장 부서진 철문 정비 등 시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봄맞이 대청소에 참석한 상인 강모 씨는 "청소를 하다보니 땅이 많이 닳았지만 주민들과 함께 환경정비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다"라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봄 산책 나오는 길에 기지제 상가를 찾아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계절마다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해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단체, 주민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에서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이사진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10여 명은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주시설공단, '함께장터' 동참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금암동 한 식당서 소통간담회 가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이사진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10여 명은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함께장터' 프로젝트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는 소비 촉진 행사다.

전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공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착한 선결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월 1회 정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 장소로 골목상권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금>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